

KAL 007사건에서 빠진 "Mayday"¹ 콜

이 투고 문이 포함하고 있는 사항은 인증받은 상업용 고정익기 (fixed wing), 상업용 헬리콥터, 상업용 글라이더 파일럿이었으며, 현재는 개인 조사 연구자인 페트릭 브라이언트가 위원회에 보내온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브라이언트는 007기가 추락할 당시 로스엔젤레스에 있는 ABC 방송의 제어 담당 기술자였다. 나중에 CNN과 방송 분야에서 같이 일하는 동안, 브라이언트씨는 세 라디오 방송국의 최고 기술자 보조이자, 안테나 설계 기술자였고, 거기서 그는 라디오 송신기와 관련 라디오 주파 시스템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배경. 비행기가 추락한 시기부터 1992년 보리스 엘친이 오래 전부터 찾아왔던 007기의 블랙박스 테이프들을 ICAA (국제 민간 항공 위원회) 에 제출할 때까지 전 세계는 007기가 비극적인 폭발로 인해 부서지면서 승무원들을 비롯한 승객들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거나 의식을 잃었다고만 "알아왔다". 12분 동안 007기가 어떻게 공격 후에도 비행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이 평가는 폭발 후에도 생존자가 살아남았을 것이라거나 비행기가 불시착에 성공하여 생존자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모두 빼앗아 갔다. 1992년 엘친이 끝내 오랫동안 감추어 왔던 블랙박스를 제출하여 ICAO에 의해 1993년 출판되면서, 비행 승무원들이 의식이 있었으며 기능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비행기 조종이 가능하여 추락을 면하고 5,000 미터 상공으로 비행하여 모네톤 섬 근처에 나선 비행으로 하강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시간이 너무 흘러 손쓰기에 늦어 버릴 지경에 이르렀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KAL 007에 관련하여 기사를 쓰는 대중 매체나 학술지들은 (그 수도 굉장히 적었다) 원래 내린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다. 모두 죽어 버렸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한 한 사실 하나로 유지되었는데, 그것은 -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mayday" 콜이 있었어야 했다는 것이다. 국제법에 따르면 긴급한 상황이 될 때 121.5 MHz의 국제 재난 주파수에 세 번에 걸쳐 쏘아 긴급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빠르게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그런 mayday 콜이 없었다.

아니면 있었는가?

이 자리에서 브라이언트 씨의 메시지들을 요약하기보다는 발췌하는 것을 택했는데 이로써 우리가 그의 말을 직접 듣고 스스로 판단하기 위해서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또한,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이들에게도 동기 부여를 하여 브라이언트 씨처럼 몇 년 전의 것이라도 [이 위원회로 그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위원회에서 그 정보를 평가하여 이 '퍼즐'이 조각 조각 맞추어 질 수 있도록 말이다.

브라이언트 씨로 부터 -

¹ 선박·항공기의 국제 무선 조난, 구조 요청 신호

"KAL 007에 대한 연구 어디에서도 미사일 공격에 있는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보내왔었던 "mayday" 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 콜을 보낼 때, 승무원 한 명(아마도 기장이라 생각됨) 이 비행기를 불시착 시킬 예정 임을 언급했습니다. 이 송신은 121.5 MHz (국제 재난 주파수) 에 보내진 것이고 프랑스에 있는 COSPAS-SARSAT 지상 스테이션에서 수신되었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그 급전이 들어온 그 당시 로스엔젤레스에 있는 ABC-TV의 담당 제어 기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간단히 보고되었고 ABC에 의해 방송되었지만 제 보고가 되지는 않았습니. 방송 자체가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는 대중 매체가 그 정보를 보류하는 것이 특이한 일은 아닙니다. (사실상, ABC News Policy 에서 분명히 그렇다는 것을 언급했지요), 그리고 제 추측으로는 KAL 007에 탑승한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ABC에 그 정보를 중지하라는 명령이 있었던 겁니다. 이럴 때는 ABC도 응했을 겁니다.

"만약 그 사실이 알려질 수만 있다면, 이는 퍼즐에서 사라진 중요한 조각을 찾아 넣는 것이 될 테고, 이로써 승무원들이 비행기를 수면 불시착하려 했으며 분명히 조종 가능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공격 지역 범위 내에 지상 스테이션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물에 의해서만 수신될 수 있었을 겁니다. COSPAS-SARSAT 위성들은 인공 위성 산업에서 "bent pipe"로 알려져 있는 중계기입니다. 그 위성들은 단순히 정보를 받고 재송신합니다. 송신 내용은 저장하지 않지요. 그래서 정보를 받는 모든 지상 스테이션은 재난 메시지 (ELT/EPRIB에 의하거나 거기서 오는 목소리) 를 받는 인공 위성의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COSPAS-SARSAT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이 곳을 클릭](#). 그 시스템의 121.5 MHz 구역이 곧 중단될 예정이기에, 시스템의 기술적인 상세 사항은 언젠가 역사 상에서 사라지게 될 지도 모릅니다...

"공격이 있었던 날, 대중 매체와 언론은 KAL 007이 "사라졌다" 라고만 알고 있었지만, 로스엔젤레스에 있는 KABC-TV는 '삽입된' (속보) 를 단 한번 보도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다음과 같았습니다:

'ABC 뉴스는 사라진 대한 항공기로 부터 재난 신고 콜을 받았다. 그 라디오 메시지는 프랑스 인공 위성에 수신되었다. (재난 신고는 다음과 같이 방송되었다):

'Mayday, mayday mayday. KAL 007 은 고도 10,000 피트를 떠나고 있다. 우리는 바다에 불시착한다' ...

"제가 언급하고 있는 송신 내용은 비행기가 더 낮은 고도로 "내려간다" (제 기억으로는 10,000 피트입니다) 고 했었고 바다 위에 불시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패트릭 브라이언트

"전 ABC 로스엔젤레스 스튜디오/현장 담당 제어 기사.

우리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송신 당시 KAL 007가 어디에 있었느냐는 것이다. 엘친이 제출했던 러시아 군사 통신 전사 자료에 관련하여 소련 가반 지역 해변에 있는 에딘카에 있는 레이더 스테이션 뿐 아니라 **Konsomolsk-na-Amure**에 있었던 **1845** 레이더 부대에 의해 -둘 다 모네론과 사할린 섬 반대편 시베리아 해변에 있음- 이미 알려진 정보와 함께 우리는 현재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고 있다. **KAL 007**은 고도 16,424 피트 끝으로 내려와 소련 영해에 있는 조그만 모네론 섬을 나선 비행하고 있었고, 소련 레이더 추적 마지막 포인트 -모네론 섬 해안의 타타르 해협 표면 1,000 피트 (소련 레이더가 추적하지 못하는 "0 지점)- 를 아직 다 내려오지 못한 상태였다. 현재 우리는 송신이 받아들여졌고 **ABC**에 의해 방송되었으며 나선 비행의 목적이 정말로, 이 정보 이전에는 우리가 단순히 추정만했었던 대로, **바다에 불시착하기 위해 넓은 지면을 찾기 위함이었음** 을 알고 있다!

버트 솔로스버그